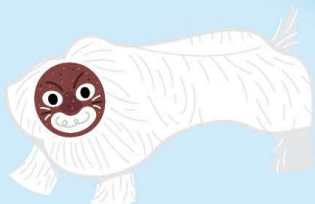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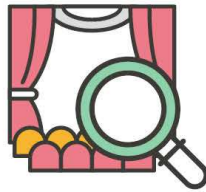
2026
성남미래교육

찾아 가는 공연



관람 예절

공연장에 오시기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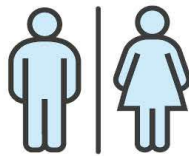
공연 사전 정보 알아보기

공연 관람 전, 공연 안내서를 살펴보고 공연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두면 공연을 더 유익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객석 입장 시간 지키기

최소 공연 시작 10분 전 입장하여 공연의 설렘과 기대감으로 공연을 기다립니다.



화장실은 미리미리

공연이 시작 된 후에는 자리를 이탈하면 안됩니다.
공연 시작 전에 화장실을 미리 다녀오는 것이 좋습니다.

박수 예절



1. 음악회와 오페라

박수는 한 곡이 완전히 끝났을 때만 쳐주세요.

단, 협주곡이나 교향곡과 같이 3악장 또는 4악장으로 되어 있는 곡은 악장과 악장 사이에 박수를 치지 않는 것이 매너입니다.

다만 한 곡의 연주가 완전히 다 끝나는 시점과 피아노와 바이올린 연주자가 악기에서 손을 떼고 관객에게 인사를 할 때 박수를 힘껏 쳐주세요. 특히 성악곡의 경우 박수와 함께 환호와 격려의 뜻에서 '브라보!'를 외칩니다.



2. 국악

국악, 흥겨운 판소리, 사물놀이 공연 도중에 흥이 나거나 신이 난다면 큰소리로 '얼췌, 좋다, 얼씨구' 등의 추임새를 공연 중간 중간에 외쳐도 좋습니다.



3. 발레와 비보잉

발레나 비보잉 장르는 공연 시작과 끝에만 박수 치는 것이 아닌, 공연 진행 중에도 무용수들이 고난도 기교를 구사할 때, 박수와 환호로 응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공연 마지막에 커튼 콜을 할 때에도 아낌없는 박수로 호응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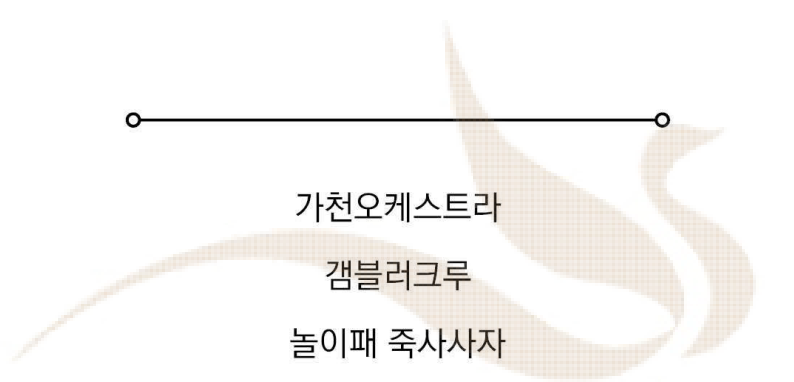

잠깐! 돌발 퀴즈

Q. 클래식 음악회나 뮤지컬 공연 중 '박수'를 쳐야 하는 올바른 타이밍은?

- ① 노래나 연주가 진행되는 도중 감동을 받으면 바로 박수를 친다.
- ② 한 곡이나 한 막이 완전히 끝나고 지휘자나 배우가 인사를 할 때 친다.
- ③ 옆 사람이 박수를 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눈치를 보고 같이 친다.
- ④ 공연장 안에서는 소리가 나면 안 되므로 박수는 아예 치지 않는다.

정답) ②

공연단체 및 프로그램



가천오케스트라

갬블러크루

놀이패 죽사사자

아트파이

AM양상블

연희공방 음마갱갱

와이즈발레단

프리업컴퍼니

후크



가천오케스트라

대학생 연주자 중심으로 구성된 청년 오케스트라로, 재학생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문화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본 단체는 지역사회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대학의 사회공헌 및 평판도 제고, 재학생 문화봉사 참여를 통한 가천인 자긍심 함양 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간 15회 내외의 공연을 계획하여 초·중·고교, 공공도서관, 기업체, 지역축제, 교내 주요 행사 등 다양한 무대에서 찾아가는 클래식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 찾아가는 클래식 공연

출연진

지휘자 1명 (음악대학 교수) / 반주자 1명 (피아노 전공 재학생) / 단 원 24명 * 관현악 전공 21명 * 성악 전공 3명

프로그램

- ▶ 비제 : 오페라 '카르멘' 전주곡
- ▶ 비제 : '카르멘' 중 "Je dis que rien ne m'èpouvante"
- ▶ 모차르트 :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La vendetta"
- ▶ 모차르트 :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Voi che sapete"
- ▶ 모차르트 :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hai gia vinta la causa"
- ▶ 하이든 : 트럼펫 협주곡 3악장
- ▶ 김동진 : 진달래꽃
- ▶ 조두남 : 뱃노래
- ▶ 김연준 : 청산에 살리라
- ▶ 베버 : 오페라 '마탄의 사수' 중 "Schweig! damit dich niemand warnt"
- ▶ 히사이시 조: '하울의 움직이는 성' 중 "인생의 회전목마"

알고보면 재밌어요!



▶ 오케스트라란?

오케스트라는 여러 종류의 악기가 함께 연주하는 큰 음악 팀입니다. 바이올린, 첼로 같은 현악기, 플루트, 클라리넷 같은 관악기, 트럼펫 같은 금관악기, 그리고 팀파니 같은 타악기가 함께 모여 아름다운 소리를 만듭니다.

* 오케스트라는 보통 40명~80명 이상의 연주자로 구성됩니다.

* 각 악기는 서로 다른 소리를 내지만, 함께 연주하면 하나의 큰 음악이 됩니다.

▶ 지휘자는 어떤 일을 하나요?

지휘자는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이자 팀 리더입니다. 연주의 빠르기를 정하고, 시작과 끝을 알려주며, 크고 작게, 부드럽게 또는 힘차게 연주하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 지휘자의 손과 막대기(지휘봉)를 잘 보면 음악의 느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 악기들의 모습을 찾아보세요.

바이올린 - 가장 많고, 밝은 소리

첼로 - 낮고 따뜻한 소리

트럼펫 - 힘차고 반짝이는 소리

팀파니 - 웅장한 북소리

플루트 - 맑고 새소리 같은 소리

* 어떤 악기가 멜로디를 연주하는지 귀 기울여 보세요.

갬블러크루

갬블러크루의 모든 예술가들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무용 및 대중예술 부문 예술가등록을 완료 다년간의 예술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였고 설립 24년차 평균 경력 20년의 전문예술단체(서울시 인증)입니다. 스트리트댄스를 통해 기초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적 대중화를 도모하여 국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예술인으로서 지녀야 할 사회적 역할 달성과 예술적 역량 강화에 집중합니다. 스트리트댄스 문화의 장르를 대중들이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문화예술 (공연, 축제, 예술교육 등) 프로그램을 창작·개발하여 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대한민국 스트리트 문화를 건인하고자 합니다.

해설이 있는 스트리트댄스 <카르페디엠>

출연진 프로그램기획 및 운영 : 이준학 / 무대감독 및 운영 : 고빈희 / 음향 및 조명 감독 : 장수용 / 조감독 : 황재희, 권귀빈
디제이 : 임석용 / 비트박스 및 비보이 : 성승용 / 사회자 : 이유민 / 사회자 및 비보이 : 박지훈
갬블러크루 : 홍성식, 김연수, 최동욱, 최찬배, 김응혁, 이규진, 박인수, 한상호, 김우중
롤링한즈 : 지혜원, 최보슬, 박선희, 배소망, 김혜원, 오혜진, 유채림, 정윤영, 이유진, 차수빈

프로그램

- ▶ 사회자 등장 (1970년 힙합문화의 탄생 소개)
- ▶ 1970년 뉴욕 브롱스로 떠나는 힙합 여행
- ▶ 비트박스 인카운터
- ▶ 갬블러크루 플라이업 (퍼포먼스)
- ▶ 관객참여 프로그램 (오늘은 나도 비보이 예술가)
- ▶ 갬블러크루 프리스타일 (스트리트온더탑)

알고보면 재밌어요!

▶ Q1. 힙합 문화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 ① 1950년대 ② 1970년대 ③ 1990년대 ④ 2010년대

정답) ②

- 힙합은 1970년대 미국 뉴욕 브롱크스에서 시작되었으며, - 음악(DJ), 춤(브레이킹), 랩(MC), 그래피티가 함께 어우러진 문화입니다.

▶ Q2. 브레이킹(Breaking)이라는 이름은 무엇에서 왔을까요?

- ① 춤을 추다 갑자기 멈춰서 ② 음악의 '브레이크 비트' 부분에서 춤을 춰서
③ 땅을 세게 차서 ④ 몸이 부서질 것 같아서

정답) ②

- DJ가 음악에서 가장 신나는 부분(브레이크 비트, 간주)을 반복해서 틀어주었고, 그 부분에서 춤을 추던 사람들이 '브레이커'가 "비트보이" "브레이크보이" 라고도 합니다.(남자는 비보이, 여자는 비걸) 이라고 말합니다.

▶ Q3. 오늘 공연이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였을까요?

- ① 누가 더 잘하나 경쟁하자 ②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
③ 공부를 많이 하자 ④ 빨리 춤을 배우자

정답) ②

- 리스펙정신은 힙합문화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틀림이 아닌 다름의 가치를 존중하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놀이패 죽자사자

샌드아트, 마술, 전통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예술가들과 함께 구성된 놀이패 죽자사자는 다양한 공연기획과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함께 맛보고, 즐기고, 느끼는 함께 만들어가는 공연을 통해 누구나 쉽게 문화예술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교에서 놀자

출연진

나레이션 및 호랑이 : 정병인 / 샌드아트 : 옥혜정 / 마술 : 박현우 / 마술 및 음향 : 이희민
호랑이 및 버나 : 정승빈 / 호랑이 및 스텝 : 김민우

프로그램

- ▶ 이야기가 있는 샌드아트
- ▶ 신통방통 버나놀이
- ▶ 눈이 번쩍 신기한 마술
- ▶ 수궁가 中 범내려온다

알고보면 재밌어요!

▶ 샌드아트란?

sand art 한국어로 번역하면 모래예술이다. 라이트박스(빛이나는 상자)위에 모래를 뿌리고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렸다 지웠다 하는 예술의 한 장르.

▶ 버나놀이란?

지름 30~35cm, 두께 3~4cm쯤 되는 헛바퀴로 양쪽에 형겅을 여러 겹 덧바르고, 가운데에는 가죽을 둥글게 오려붙인 것을 앵두 나무 막대기를 이용하여 돌리고 던지고 받고, 막대기와 담뱃대를 이어 붙이고 그 위에 물건을 얹어 돌리는 묘기를 보이는 놀이이다.

▶ 수궁가에 왜 호랑이가 나오나요?

《수궁가》는 별주부를 따라 수궁에 가서 죽을 위기를 겪은 토끼가 거짓말을 하고 살아 돌아오는 내용을 노래한 판소리다.

별주부가 육지에 도착해서 토선생(토끼)를 찾는 대목에서 토선생~토선생~부르는 소리를 호랑이가 호선생으로 잘못 알아들어 자기를 부르는지 알고 산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판소리로 엮은 것이다.



아트파이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이영을 중심으로, 대중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겸비한 실력파 아티스트들이 모인 전문 예술 단체입니다.
급변하는 문화 트렌드를 예리하게 포착하여 대상 분석을 바탕으로 눈높이에 맞춘 가장 대중적이고 감각적인 문화 콘텐츠를 기획합니다. (청각, 시각, 상상력 등) 또한 참여형 코너를 통하여 관객이 함께 호흡하고 모두가 하나되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Let's Go! 케이팝 헌터스

출연진 보컬 : 노이영 / 베이스 : 박로상 / 드럼 : 오귀령 / 일렉기타 : 임현수

프로그램

- ▶ Far beyond the Sun <기타 솔로연주곡>
- ▶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Golden'
- ▶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소다팝'
- ▶ I Wish
- ▶ Superstition
- ▶ 고민중독
- ▶ <참여형 코너>
- ▶ welcome to the show

알고보면 재밌어요!



▶ 케이팝 데몬 헌터스란?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는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Sony Pictures Animation)에서 제작 소식을 발표했던 애니메이션 영화 프로젝트입니다.

이 작품은 제목 그대로 'K-POP 걸그룹 멤버들이 사실은 악마를 사냥하는 헌터였다'는 독특하고 발랄한 설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OST가 빌보드 정상에 오를만큼 전세계적으로 최근까지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 OST 주제곡 골든의 의미는?

· 어둠을 인정하는 용기

자신의 고통과 공허함을 숨기지 않고 가사로 온전히 내뿜음으로써, 역설적으로 "아파하는 나도 괜찮다"는 해방감을 주며 희망의 씨앗을 틔웁니다.

· 시간을 견뎌낸 자의 증명

15년이라는 긴 무명 시절을 견디고 결국 '황금(Golden)'으로 빛나는 지금의 모습을 가사로 증명하며, "버티는 시간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무언의 희망을 전합니다.

· 불완전함의 아름다움:

완벽한 모습이 아니더라도, 흔들리고 방황하는 과정 자체가 나만의 고유한 서사(Story)가 된다는 메시지로 독창적인 자아를 긍정하게 만듭니다.

AM앙상블

클래식의 대중화를 지향하는 A.M 타악기 앙상블은 해설이 있는 음악회를 통하여 곡 설명과 여러 가지 타악기 소개로 관객의 이해를 더하는 유익하고 흥미로운 음악회를 추구한다. 또한 클래식 뿐 만 아니라 재즈, 대중음악 등 다채로운 장르의 프로그램과 퍼포먼스를 더하여 관객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으며, 음악회의 성격에 따라 String이나 Brass로 함께 어우러져 다양한 음색을 선보이고 새로운 악기편성을 시도하며 관객의 기대를 채워주고 있다.

타악기로 듣는 클래식 음악이야기

출연진 총감독 : 장덕진 / 연출 및 스텝 : 김광선 / 타악기 : 김용준, 이강복, 조훈 / 밴드 : 장욱, 한규민, 허지우

프로그램

- ▶ 베토벤 콘체르토 concerto - henry manciny
- ▶ 에니메이션 메들리
- ▶ 악기 소개
- ▶ (샌드아트) - 아리랑
- ▶ Ragtime(포토타입)
- ▶ pipe & pipe 윌리엄텔 서곡
- ▶ Blue dress, Twist - Chris Crockarell
- ▶ Circus Circus- Chris Crockarel
- ▶ 헝가리댄스(Hungarian Dance No.5)- Johannes Brahms
- ▶ curtain call (커튼콜)

알고보면 재밌어요!

▶ 타악기는 무엇일까요?

타악기는 쳐서 소리를내는 악기를 말합니다.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악기이기도 하며 돌리나 나무를 두드리던 본능이 진화해 지금의 화려한 드럼 셋트나 웅장한 팀파니가 되었습니다,

▶ 타악기의 분류

· 피막악기

북처럼 가죽이나 플라스틱 막을 팽팽하게 씌워 만든 악기입니다. (예 : 드럼 팀파니, 장구 등)

· 체명악기

악기 몸통자체가 울려서 소리가 나는 악기입니다. (예 : 심벌즈, 트라이앵글, 캐스터네츠)

· 무울악기

음정이 없는 타악기 (예 : 드럼, 큰북, 작은북 등)

· 유울악기

음정이 있는 타악기 (예 : 마림바, 실로폰, 팀파니 등)



연희공방 음마깡깡

‘음마(音摩)’ 소리를 어루만져 음악을 만들고, ‘깡깡’은 대장간에서 나오는 소리의 의성어로
인형 및 인형막, 악기등 공연에 필요로 하는 오브제들을 만든다는 뜻이다.

전통예술 중에서도 국가무형유산 ‘남사당 놀이’ 중 덜미(인형극을 중심으로 온고지신의 정신을 지키면서도
현시대에 맞는 풍자와 해학을 인형극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는 단체이다. 또한 여러 인형제작 방식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통해 전통인형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다양한 표현과 움직임이 가능한 전통인형들을 개발하여
대중들에게 국악과 인형극을 접목한 음마깡깡만의 유일한 오브제 극을 알리고자 한다.

박첨지와 함께하는 <연희야! 놀자>

출연진

연출 및 연희자 : 음대진 / 연주자 : 김현승(피리), 박미향(키보드) / 연희자, 전신박첨지, 사물놀이인형 : 방성혁
연희자, 산밭이 : 김성대 / 연희자, 사물놀이인형 : 서장호, 윤현진 / 연희장 : 김지훈, 김용훈, 이동현, 김도혜

프로그램

- ▶ 길놀이
- ▶ 구음사물놀이
- ▶ 인형사물놀이
- ▶ 어디내손주
- ▶ 판굿

알고보면 재밌어요!

▶ 덜미 인형이란?

판굿-상모를 쓴 사물놀이 연주자들이 사물 판굿을 보여주고, 버나놀이 기예를 감상 후
아이들과 버나를 주고 받으며 체험을 한다.그리고, 봉산사자와 마부가 나와 재담과 함께
사자춤을 추고, 소고놀이, 열두발놀이의 개인놀이가 펼쳐진다.

▶ 사물놀이이란?

네 가지 악기인 팽과리, 징, 장구, 북을 사용하여야 하는 놀이를 의미합니다. 각 악기는 천둥
벼락, 바람, 비, 구름을 상징하며 사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조화를 나타냅니다.

▶ 판굿이란?

걸립패(乞粒牌)나 남사당패(男寺黨牌)들이 갖가지 놀이를 순서대로 짜서 판놀음에서 솜씨를
보여주기 위해 벌이는 농악

▶ 사자춤이란?

사자의 탈을 쓰고 추는 춤을 의미합니다.

사자춤은 「영산회상(靈山會相)」에 맞추어, 청사자(靑獅子)·황사자(黃獅子)가 요신족도
(搖身足蹈)하여 앞으로 나아가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 선 다음, 엎드렸다가 일어나 탁지
(啄地)·관목(矚目)·휘미(揮尾)·개구고치(開口鼓齒) 등 사자의 여러 가지 동작을 흉내 내며
추는 춤입니다. 현재 함경북도 북청 지방의 「북청사자놀음」과 황해도 「봉산탈춤」 속에
사자춤이 들어 있습니다.



와이즈발레단

클래식 발레부터 Art Collaboration까지 다양한 공연예술 표현을 목적으로
2005년 창단되어 연간 100여 회의 국내외 공연활동을 하고 있다. 해외발레단으로서
광저우발레단과 2013년부터 MOU를 맺고 교류를 하고 있으며 또한 몽골국립발레단과도 MOU를 맺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상호 간 공연을 활발하게 진행한 바 있다. 춤으로 소통하고, 춤의 즐거움을 나누며
모두가 예술로 풍요로운 삶이 되기를 꿈꾸는 민간 전문예술단체이다.

해설이 있는 발레 <콩닥콩닥 Hello 발레>

출연진

대표 및 해설 : 김길용 / 지도 및 해설 : 이아람, 권세현 / 해적 中 메도라 : 조은희, 최지우

해적 中 알리 : 정세환, Davaadorj Oyun / 해적 中 콘라드 : 김응성, 최혁준 코펠리아 그랑파드되 : 서혜승, 김재민, 심시연, 김우준

프로그램

- ▶ 나도 발레리노/발레리나!
- ▶ 발레 해설 1: 인형의 사랑 이야기 <코펠리아>
- ▶ 작품 공연 1: 발레 <코펠리아> 그랑 파드되
- ▶ 재미있는 발레 역사와 발레 마임 배우기
- ▶ 발레 해설 2: 박진감 넘치는 모험 <해적>
- ▶ 작품 공연 2: 발레 <해적> 그랑 파드 트루아
- ▶ 피날레: 무용수와의 특별한 커튼콜

알고보면 재밌어요!

▶ 발레는 어느 나라에서 시작되었을까요?

15세기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발레는 귀족사회에서 추던 춤이었는데요. 16세기경 14세의 나이로 프랑스로 시집간 이탈리아 명문가인 메디치 가문의 '까뜨린느 드 메디치' 공에 의해 프랑스에 전래되었습니다. 이후 러시아까지 전파되어 큰 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 발레용어

- 프리마 발레리나 앵솔루타 : 한 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여성 무용수에게 주어지는 칭호
- 발레리나 : 여성 주역 무용수
- 발레리노 : 남성 주역 무용수
- 솔리스트 : 주역 다음으로 기교를 요하고, 비중이 높은 역할을 맡는 무용수
- 코르 드 발레 : 일반 단원들
- 파드 되 : 2명에서 추는 춤. 특히 고전 발레에서는 주역 남녀 무용수가 함께 추는 춤을 뜻합니다.
- 파드 트루아 : 3명에서 추는 춤. 주로 주역 남녀 무용수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리업컴퍼니

“춤으로 일상이 조금 더 재미있어질 수 있을까?” 2003년 성남에서 시작된 프리업컴퍼니는 K-POP과 스트릿댄스를 바탕으로 활동하는 아트 컴퍼니예요. 13명의 아티스트가 함께 모여 무대를 상상하고, 움직임을 설계해요. 작은 아이디어가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되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만들어 가요. “우리의 움직임이 일상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면?” 그 마음으로 스트릿댄스와 K-POP 문화를 나누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순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댄스 플래닛 (Dance Planet) : 춤의 행성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출연진

총괄기획·진행 : 정선주 / 케이팝 : 조주미, 서청아 / 힙합 : 이하영, 설예원, 김진성, 이슬, 정선주
락킹 : 양승수, 장석근 / 비보이 : 김민기 / 영상 아카이브 : 최세응

프로그램

- ▶ 출발! 춤의 세계로 초대
- ▶ 탐험 시작! 춤의 행성에는 어떤 춤이 있을까?
- ▶ 착륙! 모두의 댄스
- ▶ 귀환 스테이지! 춤의 행성에서 지구로

알고보면 재미어요!

▶ 왜 ‘댄스 플래닛’일까요?

‘플래닛’은 행성이예요.

행성마다 환경이 다르듯, 춤도 장르마다 느낌이 달라요.

같은 음악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 차이를 찾아보는 게 이 여행의 재미예요.

“오늘, 어떤 ‘춤의 행성’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 이 시간이 특별한 이유

오늘은 누가 더 잘하는 시간이 아니예요.

보고, 듣고, 느끼며 나만의 리듬을 만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춤의 행성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후크

공연기획 후크(Hoek)는 공공 공연 기획과 예술 단체 매니지먼트를 수행하는 문화예술 플랫폼으로서, 지역 사회와 예술단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중 청년예술가들로 구성된 엔에이씨엘 앙상블은 후크의 다양한 공연기획과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게 사회 환원을 활발한 활동하고 이어가고 있다. 클래식, 한국전통음악, 실용음악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과 함께 구성된 엔에이씨엘 앙상블은 전문공연장 뿐만 아니라 문화거점지역 공연, 찾아가는 학교공연을 통해 입양아동·장애아동·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후원과 전문멘토링을 하며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바람을 타고 떠나는 음악여행

출연진 나레이션 및 성악 : 심난영 / 연주자 : 김나연(건반), 정운화(바이올린), 류승민(첼로), 홍채진(플룻), 연주자 : 황남규(클라리넷), 이지은(가야금), 이승미(해금), 안나영(국악 타악)

프로그램

- ▶ 1. 오프닝 : Breeze Overture (산들바람 서곡)
- ▶ 2. 악기 군별 연주
 - Love wins all (현악) · 바람이 불어오는 곳 (관악)
 - 음연동화 '햇님달님'(국악)
 - ① 너영나영 ② 가시버시 ③ 한오백년 ④ 산도깨비 ⑤ 강원도 아리랑
 - ⑥ 진양 아리랑 ⑦ 밀양 아리랑 ⑧ 비나리 ⑨ 모두 다 꽃이야 ⑩ 프론티어
- ▶ 3. 학생 참여 활동
 - 출발 (악기 연주) · 행복해져라 (노래부르기)
- ▶ 4. 클로징 : 바람의 노래

알고보면 재밌어요!



▶ 음연동화란? 악기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다양한 서양악기들은 연주하는 방법과 소리가 나는 방식에 따라 구분이되는데요. 활로 악기 선을 마찰해서 소리를 내는 현악기, 관에 바람을 불어 넣어서 소리를 내는 관악기 손가락으로 건반을 눌러 여러 가지 음을 동시에 연주하는 건반악기로 구분해요. 한국의 전통 악기도 가야금과 해금은 현악기, 두드려 소리가 나는 장구는 타악기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 악기군 별로 어떤 소리를 내면서 어떤 음악을 연주하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면 더 흥미롭게 음악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 음연동화란?

'전래동화' 속 이야기를 나레이션으로 들으면서 음악을 감상하는 '이야기가 있는 음악회'를 말해요. 특별히 이번 공연은 서양음악 악기와(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플룻, 건반)과 한국 전통악기(가야금, 해금, 국악타악)를 통해서 다양한 소리와 다채로운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수 있어요.

▶ 음연동화<햇님 달님>의 줄거리는?

옛날 한 마을에 어머니와 어린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외출했다가 호랑이를 만나 잡아먹히고, 호랑이는 어머니로 변장해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향했죠. 이를 눈치 챈 어린 남매는 급히 나무 위로 도망쳤지만, 호랑이도 뒤따라 왔죠. 무서운 호랑이 때문에 겁을 먹은 아이들은 하늘에 도움을 청하며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이 동아줄을 타고 아이들은 하늘로 올라가고, 호랑이는 섞은 동아줄이 내려와 떨어져 죽게 되었는데, 하늘에 오른 남매는 각각 해와 달이 되어 세상을 밝히게 되었다고 해요.

설문조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공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간단한 설문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설문에 바로 연결됩니다.

※ 본 설문은 프로그램 운영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조사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 목적 외 사용되지 않으니
솔직하고 적극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6
성남미래교육

찾아 가는 공연

